

< 날개와 그늘 >

“형, 이번에는 어때요? 된 거 같아요?”

정훈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가채점 결과를 보니 몇 점이 부족한 것 같았다. 두세 문제만 더 맞았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그 몇 문제 더 맞히는 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였다.

“삼겹살이나 먹자.”

“나중에 공무원 되면 여기 좀 단속해 주세요.”

정훈의 후임 진성은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정훈은 그 말이 진담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정훈은 마음속으로 날짜를 계산해 보았다. 공항에서 일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갔다.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잠깐 아르바이트로 문제집 값이나 벌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벌써 이렇게 되었다. 함께 노랑진에서 공부하던 대학 동기는 합격해서 구청 공무원이 되었고, 정훈은 인천으로 돌아와 비정규직 직원이 되었다.

군 제대 후 첫해에는 의욕적으로 시험공부에만 전념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의 벽은 듣던 대로 만리장성처럼 높았다. 정훈을 괴롭게 하는 두 종류의 숫자가 있었다. 은행 계좌의 잔액과 불합격한 공무원 시험 점수. 전자와 후자 모두 0에 수렴할수록 괴로웠다. 숫자를 올리는 것은 자신의 키를 높이는 것만큼 어려웠다.

아버지의 옷 가게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계속 손을 벌릴 수 없게 되었다. 책값이라도 벌어야 했다. 정훈은 자기도 모르게 공항과 관련된 일들을 찾아보고 있었다. 인천에 사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냥 공항이 좋았다. 공항은 사막 속 오아시스 같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험공부를 하다가 펜을 놓고 공항을 생각하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가끔 도서관 창밖으로 보이는 비행기 날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땔 수 없었다. 공항 대합실을 들어설 때 느끼는 다양한 외국 음성들, 비행 시각이 가득한 전광판, 줄지어 서 있는 캐리어들, 그 속에서 부풀어 오를 달달한 여행 이야기들……. 여행이든 이민이든 즐거운 일탈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부러웠다.

검색해 보니 의외로 공항과 관련된 일들은 많았다. 그러나 정훈은 특별한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 같은 것 없이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 또한 수험 생활도 병행해야 했기에 육체적으로 소진되는 일은 피해야 했다. 정훈은

온라인으로 LFK(러키 푸드 코리아)라는 생소한 기내식 전문 생산 업체에 호기심으로 지원을 했고, 바로 그다음 날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다. 다음 날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었다.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데……. 정훈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놀랐다. 그는 순식간에 기내식 업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었다.

기내식이 생산되어 비행기에 탑재되는 과정은 크게 3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진다. 프로덕션, 어셈블리, 그리고 딜리버리. 프로덕션에서는 식자재를 1차 가공 및 조리하여 기내식의 초본을 생산한다. 그리고 바트에 담겨진 음식은 어셈블리 파트로 전달되어 완성된 형태의 기내식으로 2차 가공 및 조립된다. 완성된 기내식은 딜리버리 과정을 거쳐 비행기에 탑재된다. 각각의 파트는 각각 다른 업체에 의해 진행되고, 근로자들의 80퍼센트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정훈이 속한 LFK는 프로덕션 파트를 맡은 업체로 하루에 3만 식(食) 정도를 생산한다. 이 중 2만 5000식 이상이 초대형 항공사인 에이비씨항공에 납품된다. 다수의 비정규직이 소수의 정규직을 위해 일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소수의 대기업을 위해 일하는 피라미드 구조. 정훈은 세련된 최첨단 공항 이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정훈의 부서는 콜드키친으로 비가열 가공을 하는 주방이었다. 샐러드, 칼질, 슬라이싱 중 정훈의 업무는 슬라이싱이었다. 정육점에서나 보던 육중한 기계 앞에서 주로 햄과 치즈를 슬라이싱했다. 본레스 햄, 브루스트 햄, 터키 햄, 블랙 햄, 브레졸라, 에멘탈 치즈, 체다 치즈, 그뤼예르 치즈 등등 평생 볼 햄과 치즈를 기내식 공장에서 다 본 것 같았다. 햄과 치즈는 더 이상 냄새도 맡기 싫었다.

정훈이 일 년간 일하는 동안 많은 비정규직들이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했다. 조리사의 꿈을 가지고 왔다가 단순 반복 작업에 실망하고 떠난 청년도 있었다. 계약할 당시에는 다양한 조리 업무를 실습할 기회를 준다고 했으나, 그 조리사 지망생은 여섯 달 내내 햄 슬라이싱 작업만 했다. 정규직은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비정규직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시간에 쫓기며 매일 정해진 분량을 슬라이싱해야 했다. 자신의 경력도 얇게 슬라이싱되는 것 같다는 농담을 남긴 채 그는 반복 작업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

월간 근무 스케줄을 놓고 정직원 황석범과 말다툼을 한 후 떠난 청년들도 있었다. 근무 스케줄은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뉘지는데 항상 오후조는 비정규직들이 맡아야 했다. 오후조는 오후 1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업무가 끝나기 때문

에 오전조보다 더 피로했고, 오전 개인 시간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들 싫어했다. 오후 1시가 명시된 출근 시간이었지만 실제 출근은 12시 반까지였다. 업무 지시 사항을 듣고, 생산한 지 24시간이 지난 식자재를 폐기하는 일을 하고 나면 오후 1시였다. 오후조가 매일 노동한 30분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계약서를 쓸 당시에 오전조, 오후조가 번갈아 있다는 막연한 설명만 들었을 뿐 실제로 오후조 근무가 80퍼센트 이상일 줄은 아무도 몰랐고, 근무 스케줄의 규칙성도 없었다. 유일한 규칙은 정규직 직원은 오전조 근무로만 배치되는 것이었다.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 비정규직들은 정직원 황석범과 1:1 면담을 했고 결과는 둘 중 하나였다. 그 비정규직이 며칠 후 짐을 싸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주어진 스케줄 대로 일을 하든지.

정훈은 자신과 같은 콜드키친에 배정된 몇 살 어린 비정규직 진성과 친해졌다. 진성은 구김살 없이 쾌활하고 진솔했다. 근무한 지 며칠 만에, 자신이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과 현재 30만 원짜리 지하 원룸에 산다는 사실도 주저 없이 말했다. 진성은 고등학교 자퇴 후 작은 공장에서 일을 했었다. 사장이 막내인 진성에게 번번이 사적인 심부름까지 시키자 진성은 1년을 못 버티고 결국 자진 퇴사하였다.

정훈은 쉬는 시간에 진성과 기내식 공장 너머로 이륙하는 손톱만 한 비행기를 보며 각자 여행하고 싶은 나라 이름을 대곤 했다. 둘 다 피라미드의 바닥에 있다고 생각했고, 둘 다 날개를 달고 멀리 떠나고 싶었다. 나중에는 더 이상 델 나라가 없었다.

오후조에는 감시하는 정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비정규직들은 일하다가 가끔 햄이나 치즈 한 조각을 집어 먹기도 했다. 다들 그것을 매일 30분씩 추가 노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했다. 작은 부패는 큰 부패에 대한 복수였던 셈이다.

폭염이 지속되던 여름, 국제 정상회담과 휴가 시즌이 겹치면서 에이비씨항공에서 요구하는 기내식 물량이 폭주하게 되었다. 기내식 관련 모든 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석범은 전화기에 대고 연신 고개를 숙여 가며 통화를 했다.

“아……. 네, 사장님. 아……. 네, 그렇게 최대한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가능합니다. 네, 네……. 기계든 사람이든 철야로 돌려서라도 해 보겠습니다.”

물량을 맞추려면 전 직원이 휴가 없이 오전, 오후조에 근무하더라도 며칠의 밤샘 작업이 필요했다. 석범은 다음 날 점심시간에 정훈과 진성을 따로 불렀다. 그는 한쪽 입고리만 올라가는 웃음을 지으며 점심 살 테니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보라고 했다. 정훈은 불길한 느낌을 감지했다. 눈치 없는 진성은 웃으며 부대찌개 먹자고 말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찐돌이 석범이 웬일로 라면 사리에 음료도 주문하더니 목을 가다듬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번에 물량 터져서 많이 힘들다. 이 짓도 못해 먹겠어. 무슨 에이비씨가 명령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다 받아 줘야 하나. 다 갑질이야.”

정훈은 잠자코 찌개를 저으며 듣고 있었다. 진성이 물었다.

“그럼 대리님, 밤샘 작업 좀 해야겠네요? 수당이나 잘 챙겨 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왜 너희 두 명만 따로 불렀겠어. 잘 챙겨 주려고 부른 거야.”

진성은 불이 터지도록 밥을 쭉서 넣으며 대답했다.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석범은 음료를 따라 주며 말을 이어 갔다.

“천천히 많이 먹어. 있잖아, 내가 지금 애가 세 살이라 집에서도 너무 힘들어. 좀만 늦게 들어가면 잔소리도 많이 듣고.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 밤샘 작업을 같이 하기 힘들 거 같거든. 너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정훈이 잠시 후 조용히 물었다.

“대리님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로 밤샘 근무 스케줄 짜는 건 어떠세요?”

“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위에 눈치도 보이고 해서, 명단에는 내 이름 넣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해.”

진성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대리님, 그럼 저희가 대신 할게요. 며칠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정훈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공무원 시험이 몇 달 안 남은 상태에서 밤샘 근무를 연속해서 하면 컨디션이 엉망이 될 게 분명했다. 그리고 명단에 이름만 올리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였다. 그러나 못 하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정훈의 앞접시에는 석범이 부어 준 부대찌개가 가득했다.

다행히 물량 폭주 사태는 잘 해결되었지만, 밤샘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석범의 대리 근무를 하느라 정훈은 오전 작업을 한 뒤 기내식 센터 내 휴게소에서 엎드려 자다가 다시 야간에 출근해야 했다. 며칠 후에는 눈이 쾅해지고 현기증도 느꼈다. 식재료를 옮기느라 어깨가 아파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며칠 뒤 정훈은 계좌를 확인하고 이상한 점을 확인했다. 입금된 초과근무수당의 입금자가 회사명이 아닌 황석범으로 되어 있었다. 정훈은 석범에게 물어보아야겠

다고 생각했는데 깜빡 잊어버렸다.

어느 날 오후조를 마친 정훈은 퇴근하려고 사무실을 지나가는데,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 중인 석범과 눈이 마주쳤다.

“정훈, 잠깐 이리 와 봐.”

정훈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줘. 이것 복사 좀 하나씩 해 줘.”

“아직 퇴근 안 하신 거예요?”

“아, 일이 좀 밀려서, 자, 이것 좀 부탁해.”

정훈은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빨리 복사해 주고 자리를 뜨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복사를 하다가 서류를 들여다보니, 모두 중요한 계약 관련 서류들이었다.

석범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당황하더니 복도로 뛰어 나가면서 전화를 받았다. 상대를 알 수 없는 전화를 받으며 연신 급실거리고 있었다. 정훈은 기분이 짹짹했다. 복사가 다 끝나자 마침 석범이 들어왔다.

“대리님, 다 복사했어요.”

“그래, 고마워. 원본은 여기 원래 있던 폴더에 꽂아 주고, 사본만 이리 줘.”

석범은 사본 봉치를 본인 가방에 급하게 쑤셔 넣었다.

“근데 대리님, 그 사본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가도 되는 건가요?”

석범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뭐?”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야, 비정규직이 뭘 그런 것까지 물어봐. 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정훈은 고개를 숙였다.

석범은 갑자기 지갑을 뒤지더니 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책상 위에 내놓았다.

“너, 나 때문에 늦었는데, 갈 때 택시라도 타고 가.”

“아니에요, 지하철 타면 되는데…….”

“그냥 가져가. 공무원 시험 문제집이라도 사든가.”

“아……. 네?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았냐고? 내 정보력이 이 정도다. 잘 알아 뒤. 이 바닥이 다 정보 싸움이야. 먼저 아는 놈이, 많이 아는 놈이 이기는 거야.”

“아, 네…….”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공무원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야. 절차, 방법, 원칙 그런 거 따지는 거 질색이야. 그런 거 따지니까 남들보다 느리고 경쟁에서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석범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당황한 석범은 황급히 서류 가방을 들고 ‘나 먼저 갈게’라는 표정을 지으며 나가 버렸다. 한쪽 입고리만 올라가는 웃음만 남긴 채. 정훈은 사무실에 홀로 멍하니 책상에 놓인 지폐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폭염이 끝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 즈음 석범은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동시에 LFK는 위기를 맞았다. 에이비씨항공이 LFK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에이비씨항공은 더 싼 원가로 공급을 제안한 올마이티푸드(주)와 새롭게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3만 식 중 2만 5000식을 공급받던 거래처가 사라진 LFK는 정직원 일부를 정리 해고했고, 비정규직들에게도 대놓고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석범은 몇몇 비정규직을 불러내 1:1 상담을 했고, 그들은 모두 얼마 안 되어 공장을 떠났다. 정훈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어차피 다음 달에 그만둘 생각이었다. 그걸 아는지 석범은 정훈을 건들지 않았다. 오히려 정훈을 피하는 것 같았다.

휴식 시간에 진성은 땅에 침을 탁 뱉으며 정훈에게 말했다.

“형, 소식 들었죠? 석범이 자식……. 단물 다 빼먹더니 이젠 필요 없으니까 막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도 남은 사람이야.”

“지난번 물량 폭주할 땐 스케줄 조작해서 우리 이름은 빼고 공은 자기가 다 세우고…….”

“그게 무슨 말이야?”

“위에 제출한 명단에서 우리 이름은 아예 빼고 자기랑 정직원 몇 명만 매일 철야 작업한 것처럼 했잖아요. 몰랐어요? 소문 다 났는데…….”

“아……. 그래? 수당은 제대로 입금되었던데?”

“그렇죠. 수당은 자기가 받은 다음, 일부를 우리에게 보내 준 거죠.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이랑 수당 단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완전 남는 장사죠.”

정훈은 석범의 웃음이 생각나서 소름이 돋았다. 석범은 그 일로 수당뿐만 아니라 300만 원 정도의 성과금을 받았고, 과장으로 승진도 된 것이다.

“이제 모르죠, 이 회사도 비전 없으니 정보라도 빼내서 경쟁 업체로 도망갈

지…….”

정훈은 그날 내내 기분이 나빴다. 평상시에는 어셈블리 이모들의 부탁이나 요청도 군말 없이 받아 줬는데, 그날은 달랐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모들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짜증을 내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하던 작업을 멈추고 정훈을 쳐다보기까지 했다. 프로덕션과 어셈블리의 관계는 또 다른 형태의 갑을 관계, 아니 을병 관계였다. 기내식 업무의 주도권은 프로덕션이 쥐고 있었기에 20대의 비정규직이 50대의 비정규직에게 짜증을 낼 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여러 명의 마음을 도려낼 수 있었다. 정훈은 그날 퇴근 후 처음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저 빈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소리 없이 울었다.

낙엽이 떨어질 무렵, 정훈이 그만둘 때까지만 해도 석범은 LFK에 있었다. 진성도 공장을 먼저 떠나는 정훈을 아쉬워하면서도 한편 그를 부러워했다. 자기도 공부라는 것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며, 아니 공부 좀 하라고 혼내는 부모님과 같이 살기만 해도 좋겠다며…….

정훈은 그해 시험에 합격했다. 몇 년 만에 SNS를 오픈하고 프로필 사진도 바꿨다. 진성에게 삼겹살 먹자는 메시지도 보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프로필을 훑어보며 자신도 사회인이 되었음을 느꼈다. 그런데 휴대폰 스크린을 내리던 정훈의 손가락은 석범의 프로필에서 멈췄다. 세련된 양복에는 올마이티라고 적힌 배지가 달려 있었다. 석범은 웃고 있었다. 한쪽 입고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다.

정훈은 구청 의회사무국으로 발령이 났다. 김영란법이 등장하고, 청렴 캠페인이 유행하면서 구 의회는 청렴 해외 테마 연수를 기획하게 되었다. 방문지는 싱가포르였고, 정훈도 보좌 공무원으로 동행하게 되었다.

출국 날 아침, 정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의원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기내식 공장을 떠난 후 몇 년 만에 처음 공항을 방문한 것이었으나, 감상에 빠질 여유조차 없었다.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정훈 옆에 앉은 박 의원이 언제나처럼 일장 연설을 시작했다.

“이봐, 김 주사,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뭔지 알아요? 그게 영어로 인테그리티(integrity)거든. 우리말로 청렴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언행일치라고 볼 수도 있거든.”

끝없는 연설 속에서 정신이 혼미해질 즈음 천사 같은 승무원이 다가와 감사하게도 흐름을 끊어 주었다.

“기내식 무엇으로 드릴까요? 한식과 양식,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은 싱글벙글 웃으며 승무원과 대화를 이어 갔고, 정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맛있는 기내식의 냄새가 느껴지자 기내식 공장에서 근무했던 순간들이 흑 덩쳐 왔다. 정훈은 반사적으로 엄지손가락을 어루만졌다. 흉터가 느껴졌다. 슬라이싱하던 중 순간적으로 엄지손가락 끝부분이 썰렸다. 가끔 발생하는 사고였다. 선홍빛 피가 쌓여 있던 햄 위로 똑똑 떨어졌다. 잘린 부위는 작았지만 출혈이 심했다. 응급 처치 후 사무실에 보고했을 때 상급자가 석범에게 지시하는 소리를 어렴풋하게 들을 수 있었다. 빨리 손가락 조각을 찾아서 회수하라고. 절대 제품에 섞이지 않도록 빨리 찾으라고. 그 지시가 전부였다.

“이봐, 김 주사, 여기 아가씨가 묻잖아. 한식인지, 양식인지.”

“아……. 저는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심한 갈증이 몰려왔다. 차창 밖으로 무심한 바다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